

현대 남녀 통합 컬렉션에 나타난 모호성의 미적 특성

- 2016 FW~2019 FW 버버리, 발렌시아가, 구찌 컬렉션을 중심으로 -

김진형·김영인*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요약

패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담아내고자 하는 미적 도구로서 개인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원화된 현대 패션의 변화 중 하나인 남녀 통합 컬렉션의 진행은 동시대의 미적 가치를 담아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모호성 이론을 도입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런던, 파리, 밀라노 컬렉션을 대표하면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버버리, 발렌시아가, 구찌의 컬렉션 중 남녀 통합 컬렉션이 진행된 2017 SS 시즌부터 2019 FW 시즌까지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탈 경계, 다원성, 해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하는 모호성은 의미의 재구성과 확장이라는 내적 의미로 분석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특성과 엠슨의 모호성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남녀 통합 컬렉션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환상성과 표현 확장, 불확실성과 이질적 결합, 개별적 유희성이 도출되었다. 환상성과 표현 확장은 이질적인 코드를 기반으로 시공간의 복합적 사용과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존중하면서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장하는 미적 특성을 말한다. 불확실성과 이질적 결합은 상호 다른 요소들이 인위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미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성과 가변성을 전제로 한다. 개별적 유희성은 서로 다른 표현 의미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의외의 결과로 생기는 의외성과 재미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개인의 취향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 이 연구는 모호성 관점으로 현대 남녀 통합 컬렉션의 미적 특성 분석함으로써 다변화된 현대 패션의 표현에 대한 대안적 탐구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남녀 통합 컬렉션, 모호성, 포스트모더니즘, 미적 특성

*교신저자: 김영인, youngin@yonsei.ac.kr

접수일: 2019년 12월 9일, 수정논문접수일: 2019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0년 1월 13일

I. 서론

사회, 문화, 역사, 경제, 정치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담아내는 패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치관의 충돌, 사회질서의 혼돈, 도덕적 평가의 혼란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가치 판단의 모호함이 나타났다. 동시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패션디자인은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는 미적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가치를 담고자 하는 미의 추구 자세로 볼 수 있다. 시대별 패션이 담아내는 미적 특성은 동시대 인간 사회의 가치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현대사회의 패션은 모호함의 특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전통과 가치의 척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대 패션 컬렉션에서도 형식과 내용에서 모호함의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2010년 이후 해외 패션 컬렉션은 패션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남녀 통합 컬렉션의 진행이다. 전통적인 컬렉션은 1년에 2회, 시즌 별 1회씩 남성과 여성 컬렉션을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었지만 최근의 변화는 남녀 통합 컬렉션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일부 남성과 여성 컬렉션에서 소수의 상대 성의 모델과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균등한 비율로 진행된 컬렉션은 2017 SS 버버리(Burberry) 컬렉션으로 볼 수 있다. 최초로 시작된 버버리의 통합 컬렉션에서는 SS와 FW의 시즌, 성별의 구분, 시대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여 다양성을 포용한 후 새로운 미적 가치를 표현하였다. 버버리의 최초 통합 컬렉션 이후 밀라노 컬렉션의 구찌(Gucci)는 2017 FW 이후 여성복 컬렉션 중에 남녀 통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파리 컬렉션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경

우 2018 FW 컬렉션부터 통합으로 진행되었다. 런던, 밀라노, 파리 컬렉션을 대표하는 이들 디자이너 컬렉션의 남녀 통합 진행은 소재, 모델, 색채, 디자인 등 의복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전통적인 구분을 없애고 상호 융합하거나 제3의 미적 가치를 드러낸 것이었다. Beak and Bae(2019)에 의하면 알렉산더로 미켈레(Alexandro Michele)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로 제안하는 구찌 컬렉션의 미적 가치는 과거와 현재, 남과 여, 동양과 서양 등 상호 대비되는 요소들의 혼합을 통한 크로스오버(crossover) 스타일의 지향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에서는 새로운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른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가 가지고 있는 젠더(gender)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구찌 컬렉션에서 반영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기존의 남성다움, 여성스러움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각각의 다름을 조율하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서로 다름을 수용한 후 발산된 미적 특성은 기존의 가치관으로 해석이 어려운 모호성의 특성을 담고 있다. 영국의 문학평론가인 윌리엄 엠펜(William Empson)의 이론에 의하면 모호성은 대상의 고정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 또는 두 개의 서로 연관되지 않은 표현들이 유연한 사고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모호성 관점으로 버버리, 발렌시아가, 구찌의 남녀 통합 컬렉션에 나타난 미적 가치를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의미와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모호성 관점의 미적 특성에 대한 문헌 연구 그리고, 엠펜의 모호성 이론을 바탕으로 3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통합 컬렉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영향력 있는 컬렉션인 런던, 파리, 밀라노 컬렉션 중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있으며 변화를 추구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한정하여 각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 진행하였다. 버버리의 경우 남녀 균등한 비율의 통합 컬렉션 최초 진행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등 전통에 머물지 않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발렌시아가 역시 베트멍(Vetements) 출신의 데냐 바잘리아(Demna Gvasalia)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하는 등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찌 또한 최근 알렌산드로 미켈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한 후 통합 컬렉션뿐만 아니라 디자인 혁신을 통해 기존 소비자와 더불어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컬렉션 기간은 남녀 통합 컬렉션이 균등한 비율로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버버리는 2017 SS~2019 FW, 구찌는 2017 FW~2019 FW, 마지막으로 발렌시아가는 2018 FW~2019 FW 시즌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모호성의 정의와 이론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2016)에 의하면 ‘모호하다’는 ‘흐릿하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명사형인 모호성은 여러 뜻이 뒤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운 말의 성질을 말한다. 또한 민중 옛센스 한영사전(2019)에 의하면 ‘모호하다’는 영어로 ‘ambiguous’로서 2~3가지 이상의 가능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having two or more possible meanings)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이 가능하고 열려있는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서 모호성의 중요한 특성은 ‘여러 가지 의미, 뜻이 섞여 있기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호성의 이러한 개념은 과학 분야에서는 불명확하고 애매 모호한 뜻의 배제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예술·문학·디자인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에 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경우

대상을 규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다의적인 성격으로 확장 가능하다(Ryu, 2004).

모호성의 개념과 연구는 플라톤(Plato)이 철학과 문학을 비교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20세기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의 연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트는 아벨(Abel)의 언어 연구에서 상반된 표현이 인간의 사고에서 보편적이며 오래된 특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꿈의 표상들이 보이는 모순과 모호성은 고대 언어에서 보이는 이중성과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Uh, 1996).

서구 사회에서 진행된 본격적인 모호성에 관한 연구는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 평론가인 윌리엄 엠슨은 그의 저서 「Seven types of ambiguity」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언어가 가지는 다의성을 분석하고 모호성은 단점이 아닌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엠슨은 모호성을 둘 또는 그 이상의 지시 내용을 의미하거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태도 및 감정 등을 나타내는 말이나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모호성에 관한 일곱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나의 단어 또는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미의 불확정적 은유로 인해 뜻이 전이되는 경우를 말한다. 은유적 표현은 수용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발신자의 의도 이상으로 풍부한 상상력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드라마틱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Empson, 1966). 은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은유를 ‘전이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는데 상호 대치를 통해 원래 지시한 의도와는 달리 사물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와 확장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사고가 확장된다고 말한다(Choi & Yoo, 2004). 둘째, 둘 이상의 뜻이 저자의 의도에 맞춰 완전히 하나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셋째, 동음이의어로서 하나의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넷째, 서로 다른 의미들이 결합되

어 표현되는 경우이다. 다섯째, 직유의 두 개념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전이되는 경우이다. 여섯째, 하나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부적절하여 독자가 스스로 해석을 내려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발신자의 의도와는 달리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품의 의미가 확장되고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마지막 일곱째는 하나의 진술이 원론적으로 모순되어서 저자의 정신에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모호성 관점 해석 연구는 다양한 의미의 확장과 가능성, 고정관념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창의적 발상 효과 등의 기능을 통해 미적 특성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Table 1). 첫째, 의미의 확장과 가능성을 보면 Kim et al.(2007)은 매치리스(matchless) 스타일이 스포티즘(sportism)과 서로 다른 스타일로 결합되어 만나는 현상 가운데 나타난 미적 특성을 융합형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21세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으로 다원성, 절충, 해체 등의 과정을 통해 복합된 스타일이 제안되는 패션 코드의 이해를 위해 모호성의 관점으로 미적 해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의 스포츠, 남성·여성복에서 벗어나 상호 영향을 교환하는 크로스오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미들이 융합하며 새로운 미적 특성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정관념의 변화 가능성은 앙티 쿠티르(anti-couture), 고딕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성 고정관념의 해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양성애적, 젠더화된 성의 가능성을 통해 변화된 성 관념의 특성이 연구된 사례를 말한다. Byun and Chae(2009)는 현대 패션

에 나타난 성적 모호성 관점의 연구에서 성 고정관념의 해체를 통해 미의 확장을 추구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앙티 쿠티르 현상의 연구에서는 모호성을 남녀의 양성 공유, 성의 변형과 왜곡 등의 이미지를 절충형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Yim(2013)의 고스(Goth) 하위문화 스타일의 연구에서는 성적 모호성을 여성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특성을 포함한 양성애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스는 규범적인 남성성에 대한 저항의 표출로서 반이성애적, 비 인습적인 성의 추구가 특징이다. 이러한 고스는 패션과 여성성의 문화적 결합으로 나타난 젠더화된 여성성의 전이된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모호성 관점의 해석을 통한 창의적 발상의 긍정적 효과는 패션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다. 이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넘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동력이 된다. Kim (2016)은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애매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해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엠슨의 모호성 이론과 시각 디자인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자기 부정 페르소나(persona), 다중 정체성의 성적 모호성을 존재의 모호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모호성을 ‘독자의 추론 형식을 통해 얻어낸 효과’라고 주장한 엠슨의 주장에 근거하여 마르지엘라의 디자인을 조형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미적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모호성이 창의적 발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Table 1. 현대 패션의 모호성 연구와 의미.

연구자	연구 대상	모호성의 의미	의미 해석
Kim et al.(2007)	패션디자인	디자인 개발의 확장 가능성	스포츠 매치리스에 나타난 성 경계의 모호성
Byun and Chae(2009)	패션디자인	고정관념의 변화	앙티 쿠티르 경향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Kim(2016)	패션디자인	창의적 기법 개발 가능성	모호성 관점의 마틴 마르지엘라 디자인의 해석
Yim(2013)	패션디자인	차별화된 미적 특성	고스 스타일에 나타난 성적 모호성 분석

2.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적 특성

패션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갖는 양면성, 다원성, 해체적인 성향은 고정된 의미가 없이 복수적인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Yim, 2013). 새로운 의미 부여와 재해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연구에 중요한 연구 주제로 이전 모더니즘이 구축하였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Jung(2008)의 연구에서도 탈중심화 현상을 현대 패션의 중요한 현상으로 언급하면서 전통적이며 통제적인 신체의 기준에 대한 해체를 통해 새로운 신체미를 추구하는 현대 패션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다양한 미적 해석 가능성이 나타나는데 선행연구 결과 현대 패션의 미적 특성을 환상성, 불확실성, 유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신체에 대한 새로운 미의식과 패션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Kim(2013)은 환상성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현대 패션의 미적 특성 중 하나로 분석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몸에 대한 조형 작업을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다중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며 몸은 인간의 자아, 정체성, 사회, 역사, 문화를 재구성하는 담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현대사회의 몸과 패션은 이상적인 미의 추구를 위해 유희과 강요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

한 소비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Park and Bae(2017)의 연구에서는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환상성의 내용으로 차이를 통한 의미의 재정의, 은유와 환유, 탈경계성, 타자성 등의 현상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환상성의 내적 의미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패션 디자이너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환상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적 의지가 확대된 디자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Kim(2015)은 현대 패션에서의 환상성은 이상적인 신체의 아름다움에 인위적인 변형과 왜곡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미적 특성으로는 불확정성, 상호 텍스트성, 유희성, 해체성, 탈 경계성으로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미적 해석의 태도와 미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Park & Bae, 2017). Lee and Yang(1999)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실성에 대해서 패션을 창조하는 디자이너와 수용하는 소비자의 태도와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패션의 창의적 생각에 대한 이해관계의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이 미적 의식의 확장을 말하는 것으로 발산과 수용의 관계에서 패션의 다원성과 이중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데리다(Derrida)는 불확실성을 현대사회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절대적인 가치와 미의 기준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다양성과 가변성이 자리 잡으며 각각의 영

Table 2.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 의미.

미적 특성	연구자	내용과 의미
환상성	Kim(2015)	불확정성, 상호 텍스트성, 유희성, 해체성, 탈경계성
	Park and Bae(2017)	차이를 통한 의미의 재정의, 은유와 환유, 탈경계성, 타자성
불확실성	Lee and Yang(1999)	다원성, 이중성
	Park and Bae(2017)	우연성, 모호성, 이질성
유희성	Ha(1994)	해방과 자유의 감정, 사회적 역할의 해방, 유아적 유희, 쾌감의 표현
	Kim and Lee(2012)	창의적 도구, 다양성 표출 도구
	Kam(2019)	탈권위

역은 상호 영향을 받으며 발전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상반된 스타일의 결합이 나타나는데 크로스오버 스타일이 대표적인 패션 스타일로 말할 수 있다. Back and Bac(2019)는 구찌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렉산드로 미켈렌의 디자인 경향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고 유연하게 옷 입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남과 여,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등 상반된 이미지들을 교차 혼합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구찌의 새로운 디자인은 상호 공존을 통한 복합적이며 융합적인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적 특성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의 포스트모던 특성으로 유희성은 새로운 창의적 방법이며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 패션의 유희성은 최첨단 기술의 발전과 부의 확장을 누리는 사회에서 내면적이며 감성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나타나는 개성화, 다원화된 욕구로서 과거 유치함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창작의 도구로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Kim & Lee, 2012). Ha(1994)의 연구에서 유희성은 역사적으로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에 강하게 표출되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시주의가 유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유희성의 내적 의미로는 해방과 자유의 감정, 사회적 역할의 해방 그리고, 유아적 유희 쾌감의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구찌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분석을 통해 유희성을 특성을 도출한 Kam(2019)의

연구에서는 2017 SS 컬렉션에 이용된 제이드 피쉬(Jayde Fish)의 타로 카드 작품 사례 분석을 통해 제이드의 카드 작품에 담겨 있는 사랑과 상실, 영혼과 박탈 등의 이야기를 위트 있게 풀어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럭셔리 브랜드의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감성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중과의 친근한 소통의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3. 모호성과 미적 특성

선행연구 결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모호성의 개념은 명확한 정의를 보류하고 새로운 의미의 출현에 대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의미의 재정의를 통해 창의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에서 시작된 모호성을 20세기에 재정의한 엠슨의 7가지 모호성의 유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Figure 1>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환상성

환상성의 어원과 의미를 분석해 보면 ‘돌발적인 것, 기묘한 것, 신비스러움, 현존하지 않은 것의 창조’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현실에 은폐되어 있는 체계화된 질서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포용하는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Kim, 2015). 환상은 현실에서 제한적이고 고정적인 것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양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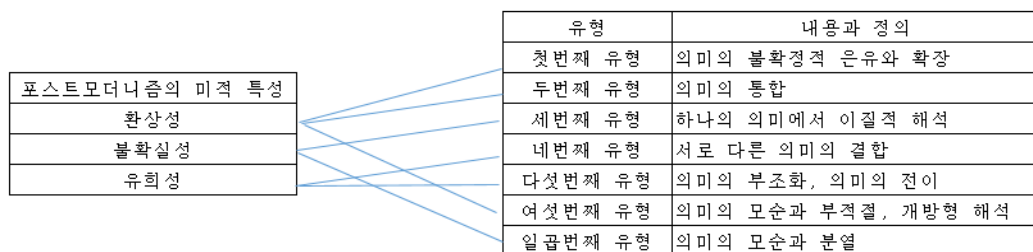


Figure 1.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특성과 모호성의 연관성.

을 결합하는 것으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투영은 은유와 환유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연상 작용과 초현실적인 이미지의 차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환상성은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현상의 반영이며 이를 소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시적 해방과 의식의 확장을 통한 도피처의 역할을 포함한다(Park & Bae, 2017). 환상성의 특성은 엠슨의 모호성의 법칙 첫 번째 유형인 의미의 불확정적 은유와 확장, 두 번째 유형인 의미의 통합 그리고, 여섯 번째 유형인 의미의 모순과 부적절, 개방적 해석과의 연관성이 있다.

2) 불확실성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현대 패션은 다양화되고 개성화되어 있으며 어떤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형식을 해체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해석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과격적이고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미적 특성을 보인다(Kim, 2015). 불확실성으로 나타난 현대 패션디자인은 전통, 형식에서 벗어난 디자인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판단과 의미 해석을 맡기는 불확실성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발신자의 의도와는 달리 수용자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으로 인해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면서 새로운 창조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 해석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영향력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해석의 새로움과 이에 대한 공유는 현대 패션의 새로운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의 특성은 엠슨의 세 번째 유형인 하나의 의미에서 이질적인 해석, 일곱 번째 유형인 의미의 모순과 분열과의 연관 지을 수 있다.

3) 유희성

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내적 의미는 해방과 자유의 감정으로, 사회적 역할과 일상생활에서의

해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Ha, 1994).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유희성은 한계에 대한 통찰과 비판이 담겨 있으며 창조적인 확장을 통한 미적 특성의 결과물을 이끌어 낸다. 유희성의 특성은 엠슨의 네 번째 특성인 서로 다른 의미의 결합과 다섯 번째 특성인 의미의 부조화와 전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4. 현대 남녀 통합 컬렉션의 태동과 의미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최초의 남녀 통합의 시도는 1987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컬렉션에 등장한 남성용 스커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성(性) 역할의 변화와 성 경계의 모호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패션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역할의 변화로 나타난 남녀 이분법적 해체로 나타난 젠더 개념의 크로스오버와 양면성으로 기존의 성 개념을 해체하고 통합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의 개념은 1960년대 유니섹스(Unisex), 1980년대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1990년대 젠더리스(Genderless)와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2000년대 크로스 섹슈얼(Cross-sexual)의 흐름으로 나타났다(Park & Bae, 2017). 이러한 성 개념의 해체와 통합은 현대사회에 나타난 성 의식의 반영으로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해체와 새로운 미의식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유니섹스는 남녀 겸용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 남녀의 구분 없이 1960년대 패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시대 흐름이었다. 앤드로지너스는 고대 그리스 어에서 유래된 앤드로(andro)를 뜻하는 남자와 진(gyn)을 뜻하는 여자의 합성어이다. 19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성과 가변성의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나타난 패션 스타일이며 남녀의 고정된 성 개념을 해체한 후 표출된 양성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Jang, 2015). 문화비평가 마크 심슨(Mark

Simpson)이 1994년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메트로섹슈얼은 사회현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세련된 감각과 교양을 가진 남성을 말한다. 이들은 획일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의 미용, 패션, 성형 등을 받아들이고 내재화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였다(Kim et al, 2010). 메트로섹슈얼의 현상과 배경은 복합적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기존의 남성과 여성, 과거와 현재 등의 대립적 개념을 해체하고 상호 통합을 통한 공존의 추구로 볼 수 있다. 고정관념의 해체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상호 인정과 통합을 통해 양성성의 표출로 나타났다. 2000년대 남성복 컬렉션에선 남성성에 대한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여성적인 감성과 취향을 수용한 디자인의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상징적인 특징으로는 성의 해체성, 관능성 그리고 절충성이었다(Lee et al., 2006). 크로스 섹슈얼은 여성들의 헤어, 메이크업, 성형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패션 코드로 치장하는 남성 스타일을 말한다(An, 2007). 2000년대 중반 나타난 크로스 섹슈얼은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모호한 이미지를 근거로 이상적인 미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이슈였다. 2000년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디올 옴므(Dior Homme)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한 에디 슬리먼(Hedi Sliman)은 크로스 섹슈얼에 많은 영향을 미친 디자이너이다. 그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상호 교차를 통한 새롭고 혁신적인 남성상을 제안하였다(Park & Yim, 2017).

III. 남녀 통합 컬렉션에 나타난 모호성의 미적 특성

선행연구 결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특성인 양면성, 다원성, 해체는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엠슨의 모호성에 나타난 다

양성의 수용과 같은 공통된 내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 도출된 현대 남녀 통합 컬렉션에 나타난 모호성의 미적 특성으로 환상성, 불확실성, 유희성을 엠슨의 모호성에 관한 일곱 가지 유형과의 내적 의미로 분석하였다.

1. 환상성과 표현 확장

환상성과 표현 확장이란 이질적인 코드 기반으로 시공간의 복합적 사용과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존중하면서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장하는 미적 특성을 말한다. 이전과는 다르게 패션의 중심지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디자이너가 아닌 주변부 출신 디자이너의 컬렉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나타난 구소련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디자인은 자신들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서구 주류 패션 문화는 새로움과 이질적인 코드에 많은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즉, 중심이 아닌 주변부의 문화가 새로움의 발신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통한 표현의 다양성과 확장의 긍정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환상성과 표현 확장은 엠슨의 모호성 특성 중 첫 번째 불확정적 은유와 확장, 두 번째 통합, 여섯 번째 모순과 부적절 및 개방적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은 하나의 낱말 또는 문장이 여러 방향으로 효과를 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모호성의 중요한 개념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메타포(metaphor)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A=A \text{ or } B$, C 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존의 질서와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향한다. 표현 확장성과 관련한 사례분석으로는 첫째, 구소련 조지아(Georgia) 출신의 템나 바잘리아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진행한 2019 SS 컬렉션에서 표현한 테일러링(tailoring)의 재해석과

로고 플레이(**logo play**)의 의미 확장이다. 가죽 재킷의 어깨를 각지게 강조한 평면적인 테일러링은 이번 시즌 남성복과 여성복 모두에 적용된 공유된 실루엣이다. 여기에 어깨 위 발렌시아가의 과장된 로고 플레이와 프린팅 패턴의 공유는 남성복과 여성복의 경계를 허물고 공통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Figure 2**). 두 번째 사례로, **2019 FW 버버리 컬렉션**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리카르도 티시(**Ricardo Tisci**)에 의해 전통 체크가 스트리트 무드로 재해석하여 시대와 연령대를 확대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버버리의 고유 체크 위에 호피 무늬를 배색한 니트 디자인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스트리트 무드의 스타일링으로 재해석하였다. 함께 스타일링된 베이지 가죽 소재의 조거(**jogger**) 팬츠와 컬러 스니커즈 등은 기존의 버버리의 이미지를 확장하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설정으로 볼 수 있다(**Figure 3**). 세 번째 트렌치코트의 재해석의 경우 버버리 컬렉션에서 매 시즌 지속적인 재해석을 보였지만 이 시즌에는 컬러, 스타일링 등에서 과감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표현 확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트렌치코트의 디자인 형태는 유지하였지만 전통적인 베이지에서 벗어난 블랙과

화이트를 교차하여 사용하였고, 스타일링에선 유스 컬처(**youth culture**) 무드가 담긴 핑크 컬러의 후드 집업(**hood zip-up**), 레터링(**lettering**) 그리고 조거 팬츠를 착용하였다. 리카르도 티시는 자신이 런던에서 공부했던 1990년대의 스트리트 문화, 펑크(**Punk**) 그리고 브릿팝(**Britpop**)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버버리의 재해석을 통해 전통적 위치와 역할에서 탈피하여 가상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Figure 4**). 네 번째 사례로는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담은 다양성의 표출로서 컬렉션의 스타일링을 통해 표현을 확장하는 사례이다.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구찌 컬렉션을 진행한 이후 이러한 서로 다른 요소들의 결합과 개인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개인의 취향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양한 취향의 맥시멀리즘(**Maximalism**)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2018 FW 컬렉션**에 대한 영감에 대해 미켈레는 경계가 모호해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덴티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컬렉션의 내용도 의사가 수술하듯 다양성을 조합하려는 상징으로 무대를 수술실로 연출하였다. 컬렉션은 상반된 문화와 취향, 남성과 여성, 과거와 현재 등



Figure 2.
발렌시아가 2019 SS.
From Spring/Summer 2019 Ready
To Wear Balenciaga.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
버버리 2019 FW.
From Fall/Winter 2019 Ready
To Wear Burberry.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4.
버버리 2019 FW.
From Fall/Winter 2019 Ready
To Wear Burberry.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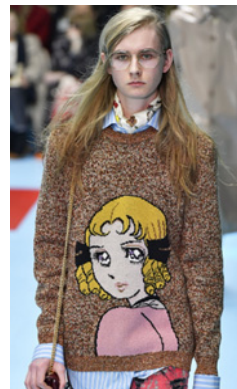


Figure 5.
구찌 2018 FW.
From Fall/Winter 2018 Ready
To Wear Gucci. (n.d.).
<http://runway.vogue.co.kr>

다름과 반대의 요소들을 혼합하여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었다. 2018 FW 구찌 컬렉션의 환상성과 표현 확장 사례분석 결과 첫째, 로고 플레이와 캐릭터를 통한 은유의 확장이 있다. 구찌의 로고 플레이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MLB의 LA 다저스(LA Dodgers), 뉴욕 양키스(NY Yankees),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구단 로고, 영화사 파라마운트(Paramount)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 그리고 일본 만화 캐릭터 캔디(Candy) 이미지의 표현을 들 수 있다(Figure 5). 이처럼 로고와 캐릭터를 담아낸 의상과 스타일링에서 기존 복식의 질서에는 찾을 수 없는 다양성의 융합이 있다.

2. 불확실성과 이질적 결합

불확실성과 이질적 결합은 상호 다른 요소들이 인위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미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성과 가변성을 전제로 한다. 엠슨의 모호성 특성에서는 세 번째, 하나의 의미에서 이질적 해석 그리고 일곱 번째, 의미의 모순과 분열로 연결된다. 서로 다른 구분의 이분법적 논리는 해체주의를 거치면서 확정을 보류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성 경계에 관한 재해석

의 분석을 보면 다양한 성적 취향의 인정과 다양성의 수용을 말한다. 이는 남녀의 구분을 넘어서 공통의 의미를 모색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미의 추구와 의미의 확장을 모색한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과 이질적 결합의 미적 특성이 관련된 세부 사례로 남녀 의복의 조형적 통합 모색, 개인의 경험과 취향의 존중 그리고, 일상성이 가미된 클럽 문화 스타일이 있다. 뎀나 바잘리아는 발렌시아가의 컬렉션을 담당하면서 남녀 복종에 대해 정교한 테일러링 기법을 가미하여 통합된 조형미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테일러드 재킷과 코트의 경우 3D 스캔과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 남성복과 여성복의 공통된 특성을 모색한 실루엣을 제시하여 전통적인 남녀 이분법을 넘어 결합적 조형미를 나타냈다. 그가 진행한 컬렉션에서 결합적 실루엣과 함께 색채, 소재, 스타일링 등을 통해 세부적 측면과 통합된 측면 모두 남녀 공통의 조형미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9 FW 컬렉션에서는 어깨 라인을 강조한 재킷을 남성복과 여성복 모두 유사한 소재와 실루엣으로 남녀 통합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Figure 6, 7). 개인의 결합과 취향의 존중에 나타난 사례로는 컬렉션 구성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2017 FW 구찌 컬렉션은 ‘연금술사의 정



Figure 6.
발렌시아가 2019 FW.
From Fall/Winter 2019 Ready
To Wear Balenciaga.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7.
발렌시아가 2019 FW.
From Fall/Winter 2019 Ready
To Wear Balenciaga.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8.
구찌 2017 FW.
From Fall/Winter 2017
Ready-to-wear Gucci.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9.
발렌시아가 2018 SS.
From Spring/Summer 2018 Ready
To Wear Balenciaga. (n.d.).
<http://runway.vogue.co.kr>

원'이라는 주제 아래 119개의 착장을 선보였는데 17~18세기 복식, 40년대 글래머러스(glamorous)한 스타일, 70년대 클럽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를 혼합하여 다양성의 공존을 시도하였다. 구찌가 다양성의 공존을 통해 개인의 취향을 드러냈다면 2018 SS 발렌시아가 컬렉션에서 템나 바잘리아는 크리스토폴 발렌시아가(Christubal Balenciaga)의 범주에서 벗어나 자신이 바라보고 해석한 컬렉션을 시도하였다. 그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사람들의 옷 입는 방법의 관찰을 통해 부르주아 스타일과 스트리트 스타일을 혼합한 스타일을 제시하였는데 <Figure 8>은 구찌 컬렉션 중 1970년대 하드록(Hard Rock) 밴드인 AC/DC의 오마주(homage)를 담은 룩이다. 모델은 하드록 밴드의 오마주와는 다르게 안경과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 지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티셔츠의 깊게 파인 가슴 라인은 여성복의 실루엣을 차용한 것으로 서로 상반된 남성과 여성, 저항과 순응 등의 의미를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9>는 브랜드 창시자의 아카이브(archive)를 넘어 자신이 관찰과 해석으로 표현한 템나 바잘리아의 2018 SS 룩 중 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디자이너로 일했고 배트멍 컬렉션에 나타냈던 해체주의 성향을 담은 디자인을 통해 코트와 셔츠가 부착하여 여러 연출이 가능한 스타일을 선 보였다. 템나 바잘리아는 구조론 시절에 태어난 후 청소년기를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에서 보냈다. 이 시기는 서구 문화의 유입과 정치 체제의 불안으로 인한 권위, 질서, 전통의 위협과 해체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배트멍 시절을 거쳐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 등에 해체주의 성향으로 표출되었다. 발렌시아가에서 선보인 해체주의적 코트 형태는 안과 밖, 이너와 아우터의 상호 대비되는 요소들 사이의 인위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미적 특성이 표현되었다.

3. 개별적 유희성

개별적 유희성이란 서로 다른 표현 의미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타난 의외의 결과로 생기는 의외성과 재미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개인의 취향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 개인의 취향 존중과 다양성의 확대는 새로운 소비 세대의 등장과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강화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놀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한 후 나타난 의외의 결과물에 재미를 추구하는 유희성은 컬렉션에서도 보이며 이는 기존의 미적 특성보다는 모호한 이미지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개의 서로 연관되지 않는 의미가 동시에 발생하는 엠슨의 모호성 유형 중 네 번째는 서로 다른 의미의 결합으로 통합 컬렉션에서는 형식과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으로써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하여 나타난 다양성 표출의 미적 특성을 볼 수 있다. 기존 복식 구조의 해체를 통해 실용적이며 일상적인 형태로 재미와 유희를 추구하는 개별적 유희성이 되었다. 엠슨의 다섯 번째 모호성의 특성인 의미의 부조화와 전이에서는 비 확정적 착용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전의 권위에 의한 해체가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DIY 성향의 창의적 수용을 말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미적 특성이 있다. DIY와 비 확정 착용과 관련된 표현 특성으로는 크리스토퍼 베일리(Christopher Bailey)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진행한 버버리의 2018 FW 컬렉션을 들 수 있다. 그는 1980년대의 레이브(rave), 그런지(grunge)와 같은 DIY적인 스트리트 스타일을 컬렉션에 영감을 받아 넣었다. <Figure 10>에서는 과시적 실루엣에 DIY적인 페인팅이 무질서하게 처리한 오버핏(over-fit) 아우터를 통해 무언가 더 채워넣어야 할 미완성적인 의복을 보여주었다. 페인팅은 기계화된 대량생산의 의복보다는 착용자의

DIY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비 확정 스타일링으로 볼 수 있다. 모델의 스킨 헤어(skin hair)를 통해 1960년대 남자가 공유했던 스킨헤드 스타일에 담긴 남녀 통합의 의미를 담아내었다. 스커트에 표현된 무지개 배색 디테일은 성적 취향의 다양성과 존중을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표출로 남녀 통합 컬렉션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모델이 무심코 들고 있는 작은 핸드백의 버버리 체크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장치로 설정되었다. <Figure 11>의 니트에 보여진 DIY적인 매듭, 패치 워크(patchwork)는 불규칙하며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디자인이며 모델이 들고 있는 비닐백과의 스타일링은 1980년대 그런지 스타일에 개인의 취향을 담아 유희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복식의 원리를 해체한 유희로 전통적 스타일링의 변화를 통해 낯설음과 새로움을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버버리의 2017 SS 컬렉션에선 광택 있는 파자마 아이템이 아우터로 스타일링되어 고정된 착장 관념을 해체하고 새로움을 전달하는 스타일링을 보여주었다(Figure 12). 전통적으로 여성복에 주로 사용되었던 광택감과 남성복 파자마 아이템에 사용된 소재 특성을 교차시킨 후 아우터로 제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형

태는 남성복이지만 외부 광택, 팬츠에 담긴 꽃 패턴 그리고 여성스러운 가방 등의 장치에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상호 교차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구찌는 2018 SS 컬렉션에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혼합적 스타일링을 통해 유희적인 모호성을 표현했다(Figure 13). 동양적인 전통 의상과 모자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구찌의 시그니처인 강렬한 레드 색상을 접목하고 G 레터링을 강조한 디자인, 소매 끝 배색 등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등 상반된 요소들을 아우르는 혼합의 유희성으로 해석된다.

IV. 통합 컬렉션의 미적 특성과 상호 연관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특성인 양면성, 다원성, 해체는 엠슨의 모호성 이론의 핵심인 불확실함에 대한 수용과 확장된 시각과 유사한 내적 의미로도 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미적 특성으로는 환상성, 불확실성 그리고, 유희성이 있다. 엠슨의 모호성에 관한 일곱 가지 유형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특성과 연결되며 상호 연관된 맥락으로 공유



Figure 10.
버버리 2018 FW.
From Fall/Winter 2018 Ready
To Wear Burberry.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11.
버버리 2018 FW.
From Fall/Winter 2018 Ready
To Wear Burberry.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12.
버버리 2016 FW.
From Fall/Winter 2016 Ready
To Wear Burberry.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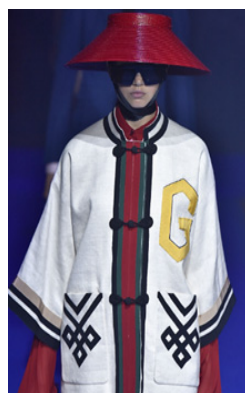


Figure 13.
구찌 2018 SS.
From Spring/Summer 2018 Ready
To Wear Gucci.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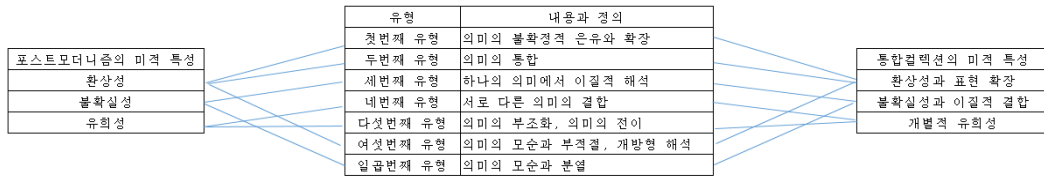


Figure 14. 포스트모더니즘과 모호성 관점 해석을 통한 통합 컬렉션의 미적 특성.

되었다. <Figure 14>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특성과 엠슨의 모호성 유형과의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통합 컬렉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 3가지의 의미 도출까지, 연관성에 관한 내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성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유형과의 연결을 통하여 환상성과 표현 확장의 미적 특성으로 도출되었다. 불확실성은 세 번째와 일곱 번째 유형과의 연결을 통하여 불확실성과 이질적 결합의 미적 특성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희성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유형과의 연결을 통하여 개별적 유희성의 내적 의미로 연결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 엠슨의 모호성 유형의 연결은 통합 컬렉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의 내적 의미가 교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상성과 표현 확장은 엠슨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유형과 연결될 수 있다. 불확실성과 이질적 결합은 세 번째와 일곱 번째 유형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개별적 유희성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유형과 연결되었다.

V. 결론

현대 패션 컬렉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난 기술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가치 기준에 대한 재해석과 해체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폭넓은 미적 감성을 담아내고 표출하는 기회와 장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남녀 구분

의 컬렉션이 점차 통합되면서 나타난 미적 특성은 기존의 미적 판단으로 해석하기엔 한계와 제한점이 나타났다. 버버리, 발렌시아가, 구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디자인 하우스이지만 역량을 갖춘 젊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의 적극적인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적 특성을 제안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탈 경계, 다원성, 해체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감성이 내포된 이들의 컬렉션은 모호성의 특성을 담고 있었다. 이 연구는 남녀 통합 컬렉션이 시작된 2017 SS 시즌부터 2019 FW 시즌 동안 컬렉션 사례분석과 문헌 연구를 통해 모호성 관점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인 3개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로는 런던, 파리, 밀라노 컬렉션을 대표하는 대표성, 남녀 통합 컬렉션을 진행하는 통합의 공통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교체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변화 주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해 모호성과 관련된 이론은 20세기 초 영국의 문학평론가인 윌리엄 엠슨의 ‘모호성의 일곱 가지 유형’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남녀통합 컬렉션에 나타난 모호성의 미적 표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상성과 표현 확장은 엠슨의 모호성 이론 중 첫째, ‘의미의 불확정적 은유와 확대’, 두 번째 ‘의미의 통합’, 여섯 번째 ‘의미의 모순과 부정적 및 개방적 해석’과 연결된다. 컬렉션에선 상반된 문화와 취향, 남성과 여성, 과거와 현재 등 다름과 반대의 요소들을 혼합하여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시도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존의 질서와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미적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불확실성과 이질적 결합은 엠슨의 모호성 이론 중 세 번째 ‘하나의 의미에서 이질적 해석’, 일곱 번째 ‘의미의 모순과 분열’로 연결된다. 컬렉션에선 남녀 의복의 조형적 통합 모색, 개인의 경험과 취향의 존중 그리고 일상성이 가미된 클럽 문화 스타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남녀 이분법을 넘어 소재, 테일러링, 색채 등 공통의 미를 추구하려는 해체주의적 탐구와 조형미가 표출되었다.

셋째, 개별적 유희성은 엠슨의 모호성 이론 중 네 번째 ‘서로 다른 의미의 결합으로 새로운 미적 특성을 표출하는 것’과 다섯 번째 의미의 ‘연상작용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비 확정적인 스타일링 방식으로 소비자의 창의적 해석을 통해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미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개별적 유희성의 미적 표현 특성은 DIY, 비 확정 그리고, 재미와 유희 등이 있었다.

연구의 한계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특성을 한정적으로 수용하여 분석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향후 컬렉션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의 사례를 모호성의 관점으로 수용하고 분석한다면 창의적인 미적 탐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n, H. J. (2007). Design analysis of men's fashion expressed in cross-sexual imag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5(2), 21-34.
- Back, J. H., & Bae, S. J. (2019). A study of strategic brand identity innovation of Gucci through the change of creative direct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5(1), 185-198.
- Byun, Y. H., & Chae, K. S. (2009). A study on anti couture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of Clothing and Textile*, 33(7), 1098-1108.
- Choi, J. H., & Yoo, Y. S. (2004). The expression of metaphor in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5), 626-636.
- Empson, W. (1966). *7 types of ambiguity*. NY: New directions publishing corporation.
- Fall/Winter 2016 Ready To Wear Burberry. (n.d).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9 from <http://runway.vogue.co.kr/2016/09/20/fall-2016-burberry/#0>
- Fall/Winter 2017 Ready To Wear Gucci. (n.d).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9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2/23/fall-2017-gucci/#0>
- Fall/Winter 2018 Ready To Wear Burberry. (n.d).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9 from <http://runway.vogue.co.kr/2018/02/20/ready-to-wear-2018-fw-burberry/#0>
- Fall/Winter 2018 Ready To Wear Gucci. (n.d).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9 from <http://runway.vogue.co.kr/2018/02/21/ready-to-wear-2018-fw-gucci/#0>
- Fall/Winter 2019 Ready To Wear Balenciaga. (n.d).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9 from <http://runway.vogue.co.kr/2019/03/28/ready-to-wear-2019-fw-balenciaga-2/#0>
- Fall/Winter 2019 Ready To Wear Burberry. (n.d).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9 from <http://runway.vogue.co.kr/2019/03/25/ready-to-wear-2019-fw-burberry-2/#0>
- Ha, J. S. (1994).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The playfulness of the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2(22), 71-84.
- Jang, J. H. (2015). A study for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androgynous look in contemporary mens collection: Focusing on 2010 S/S 2014 F/W mens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1(1), 505-519.
- Jung, S. H. (2008). *A study on the decentering phenomenon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am, S. J. (201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ostalgic Kitsch in fashion illustration of Gucci brand.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2(2), 119-129.
- Kim, E. Y., & Lee, M. S. (2012). A study on the element of fun in fashion design by Jeremy Scott. *Journal of Fashion Design*, 12(3), 43-58.
- Kim, J. H. (2015). *Expressed type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antasy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ed on the theory of fantasy on litera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W. (2013). A study on polysemous interpretation by ambiguity and indeterminacy displayed in Post-Modern graphic desig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4(4), 183-191.
- Kim, J. Y., Jae, G. M., & Lee, Y. H. (2010). Gender characteristic in contemporary men's fashion: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etrosexual and Übersexu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7), 1-13.
- Kim, S. J. (2016). Characteristics of Martin Margiela's fashion design the perspective of ambiguity. *Journal of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8(2), 191-206.

- Kim, S. Y. (2016). An analysis of Vetements fashion collections and its internal meaning: Focusing on collections from 2014 FW to 2016 F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2(3), 67-80.
- Kim, Y. H., Park, S. K., & Yun, E. Y. (2007). Study on the ambiguity in matchless phenomenon showed in sportism fashio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8(2), 101-113.
- Lee, J. H., & Yang, S. H. (1999). A study on the indeterminacy expressed in the postmodernism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45(-), 179-199.
- Lee, U. Y., Byun, M. Y., & Lee, I. S. (2006). A study for the characteristics of men's costume style on contemporary fashion: Focused on Metrosexual phenomena. *Journal of the Korea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8(2), 125-133.
- Park, S. H., & Yim, E. H. (2017). Analysis of Cross-sexual in design of Hedi Slima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3(3), 333-351.
- Park, W. M., & Bae, S. J. (2017). A study on the fantasy in fashion collection from 2006 to 2016: Focused on the conceptual approach of fantastic a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3(2), 243-257.
- Ryu, E. (2004). *On the design values of hyper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ambigu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Spring/Summer 2018 Ready To Wear Balenciaga. (n.d).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9 from <http://runway.vogue.co.kr/2017/10/02/spring-2018-balenciaga/#0Spring/>
- Spring/Summer 2018 Ready To Wear Gucci. (n.d).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9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9/21/spring-2018-gucci/#0>
- Spring/Summer 2019 Ready To Wear Balenciaga. (n.d).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9 from <http://runway.vogue.co.kr/2018/10/11/ready-to-wear-2019-ss-balenciaga/#0>
- Uh, H. J. (1996) A study in the psychoanalytic to ambiguity in litera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Yim, E. Y. (2013). Aesthetics of Goth as a subculture styl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ashion Business*, 17(2), 1-16.
-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Minjung's Essence Korean Dictionary]. (6th ed.). (2016). Paju: Minjungseorim.
- 민중 엡센스 영한사전 [Minjung's Essence English-Korean Dictionary]. (4th ed.). (2019). Paju: Minjungseorim.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Ambiguity in Contemporary Men's and Women's Consolidated Collection

- Focused on the Collections of 2016 F/W~2019 FW Burberry, Balenciaga and Gucci -

Kim, Jin Hyoung • Kim Young In⁺

Doctoral cours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Abstract

Fashion is an aesthetic tool to capture human desires, providing important clues to the values individuals and society are interested in and pursuing. The progress of the men's and women's integrated collections, one of the changes in diversified modern fash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apturing the aesthetic value of the contemporary era, and the interpretation of this requires an interpretation that deviates from the existing perspective. A new way of interpretation was to introduce postmodernism and ambiguity theor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nalyzed in a limited way from the 2017 SS season to the 2019 FW season, particularly for the men's and women's integrated collections of Burberry, Balenciaga and Gucci, who are leading the changes while representing the London, Paris and Milan collections. The study was analyzed with the inner meaning of re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meaning. In this study, ambiguity was analyzed as the inner re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meaning, and it induces creative ideas through postmodernism and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s,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ost-boundary, plurality and deconstruction. Based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and Empson's theory of ambiguity, the analysis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the modern coalescence collection resulted in fantasy and expressive expansion, uncertainty and heterogeneity, and individual amusement. The expansion of fantasy and expression refers to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ecognizing and expanding diversity of expression while respecting the complex use of space-time and individual's unique experiences based on heterogeneous codes. Uncertainty and heterogeneous combination refer to aesthetic properties created by artificially combined different elements, assuming diversity and variability. Individual amusement refers to the unexpectedness and fun that result from the simultaneous occurrence of different meanings of expressions. The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ed alternative exploration methods for expression of diversified modern fashion through analysis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odern men's and women's integrated collections via ambiguity.

Key words : men's and women's combined collection, ambiguity, Postmodernism, aesthetic characteristics